

## 에스피도 프레이레

작가, Premio Planeta상 수상자 (스페인)

에스피도 프레이레는 1974년 스페인 빌바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음악공부에 전념했던 그는 데우스토 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와 신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에스피도의 첫 번째 소설 〈아일랜드〉(Irlanda)가 처음 출간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3세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소설이 출간 된지 반 년 만에 두 번째 소설 〈항상 10월인 곳〉(Donde siempre es Octubre)을 완성한 그는 스페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플라 네타상을 최연소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2000년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에스피도는 사랑에 관한 수필과 동화집인 〈Primer Amor〉을 출간해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집 〈Aland la Blanca〉를 펴냄으로써 다양한 문학 장르에 걸쳐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2002년에는 폭식증에 걸린 한 여성의 고통과 회복과정을 그린 에세이 〈먹을 때가 곧 지옥〉(Cuando comer es un infierno)을 펴내 폭식증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관련 의학자들로부터 뛰어난 관찰력을 갖고 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런 에스피도 프레이레를 두고 평단에서는 스페인 문학계의 떠오르는 샛별로 극찬을 받았다. 7개 국어로 번역돼 출간된 소설 〈아일랜드〉로 그는 1999년에 프랑스에서 외국인 소설가에게 수여하는 Millepage상을, 스페인에서 독자가 뽑은 베스트 소설가상인 Que Leer상을 받았다.

현재 에스피도는 소설 작업 외에도 엘 파이스(El Pais), 라 라손(La Razon), 엘 문도(El Mundo)같은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 번역가, 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